

칼 빼든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로 석방 차단

특검 임명 엿새만에 수사 개시,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구속영장 발부 서면 접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법원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질했고 세질기 통이 딱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렸다는 게 양씨 진술이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임명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3개 특검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나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민주당 김병기 대표 대행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밝혔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여야 지도부가 이를 수락했다.

이어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속한 추진을 지시

했고, 이에 다시 각 정당 관계자에게 연락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은 회동 시점으로 7월 초께가 바람직하다고 건의드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주 볼 텐데 뒤로 미룰 이유가 있겠느냐. G7에 다녀온 결과도 설명하고 시급한 여러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직접 시일을 당기도록 지시해서 조기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번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등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이해해 달라”며 “내각이 완성된 이후에 협의체를 꾸릴지 등은 추후에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그만큼 허심탄회하게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여야 모두 당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에도 가능한 자주 회동해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 지도부와도 적절한 시기에 별도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이번 오찬 회동은 취임 18일 만이다. 대통령 취임 후 제1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역대 사례와 비취봐도 빠른 편으로 분류된다.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2년 가까이 지난 2024년 4월에야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9일 만인 같은 달 19일 낮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을 하던 정우택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반 만인 2013년 4월 12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처음 만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일본 순방 결과 설명 차원에서 취임 두 달 만인 2008년 4월 24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방식 조율 중”

트럼프 NATO회의 불참 가능성
이 대통령 참석 여부도 검토 중

대통령실은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재추진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양

자 회담을 따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토에 같이 말지 여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6~17일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중동 무력 충돌 사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돼 ‘가장 근접한 계기’에 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